

1950년대 중국 노조 2차 논쟁과 당국체제의 확립

장윤미*

요약

이 논문에서는 195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노조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노조의 관계 확립과정에서 사회주의 노동인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당국체제가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건국초기 노조는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고 동원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노동자 스스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 내 노동자의 민주적 자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쓴다. 그러나 노조에 관한 두 번의 논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를 당과 연결시키는 노조의 ‘매개’적 역할은 더 이상 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국가건설의 임무와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노조 1차 논쟁을 거치면서 당의 정치적 영도는 ‘업무’ 영도로 확대되었고, 다시 50년대 중반 국제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치변동과 국내 정치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2차 논쟁을 거치면서 당의 업무 영도는 ‘조직’ 영도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당의 ‘조직’ 영도라는 틀 내에서 당은 노조를 조직적으로 종속 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확고한 당국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당 영도에 의존하는 인민대중과 인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당”이라는 당국체제에 내재된 이중적 원리로 인해 이후 중국 대중운동은 끊임없이 정치에 불려나오게 되고 자주적인 노동자운동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dochibin@naver.com

주제어: 중국 공산당, 당국체제, 사회주의 노동인민, 중화전국총공회, 노조체제

I. 문제제기

최근 중국 지도부는 ‘중국특색의 정치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며 정치적 확고함(定力)을 강조하고 있다.¹⁾ 중국특색 정치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당 영도의 국가 통치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의 기원은 레닌주의식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에서 비롯되는데,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달리 이러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능했으며, 또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이러한 당국체제의 특징에 대해 첸리췌(2012a; 2012b)은 ‘57체제’라는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첸리췌는 각종 제도와 사상을 통합한 일당독재 시스템인 ‘57체제’를 통해 마오쩌둥 시대의 통치메커니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적 특징이 개혁개방 시기인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첸리췌 2014). 요컨대 첸리췌가 제기한 ‘57체제’란 백화제방·백가쟁명, 그리고 반우파운동을 거친 후 마오쩌둥의 영도 하에 만들어진 중국

1) 최근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인 확고한 신념(政治定力)’이란 사상적·정치적으로 각종 간섭과 혼란을 배제하고 정확한 입장과 방향을 견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고도의 자신감, 중앙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관철, 잘못된 사상에 대한 단호한 비판 등을 포함한다(『人民日報』, 2013.09.24).

의 정치-조직체제를 가리키며, 그 핵심은 일당독재 체제의 강화 및 발전이다. 이 글에서는 ‘57체제’라는 첸리췌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1950년대 당국체제 형성과정을 당과 노조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농민을 기반으로 한 사회혁명에 성공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당시 농민이 중국의 주요 계층이었고 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상징을 갖는다. 노동자는 사회주의 산업 건설을 위한 경제적인 주력 계급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계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국 초기 농민 혁명을 성공시킨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어떻게 노동자와 결합하였는지, 특히 노동자 조직인 노조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동원하고 통제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 체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50년대 중국 노조(工會)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개 노조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내부 논쟁으로 논의의 시야를 좁힌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갖는 존재 의미와 그 역할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당연히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되며, 따라서 당시의 논의는 신민주주의라는 시대 규정과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라는 상황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여우정린 2012; 청쉬안 1993; 가오아이디 2012) 이러한 거시적 정치 환경과 노조의 논쟁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점을 피하고, 개별 사례 위주로 서술하며 당이 구축해왔던 역사 서술의 어느 경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중국 노조 논쟁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은(후치주 2004; 류샤오지 2003) 마오쩌둥(毛澤東)과 류샤오치(劉少奇)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즉 마오쩌둥이 당시 인사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전총) 주식인 리리산(李立三)을 희생시킴으로써 가오강(高崗)과 류샤오치 간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갈등적 해석은 노조 논쟁을 최고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당의 노조에 대한 제압 이후 노조체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 쟁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의 노조 연구가 상당 기간 노조 라인(系統)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시각은 대체로 과거 1950년대 전총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노조 조직이나 지도자에 대한 불명예나 오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이후 당이 자신의 과거 오류를 일부 인정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복권해 주는 방식으로 당의 권위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노동자 계급’이 갖는 중요성이다. 우선 건국 초기 중국 사회주의의 조건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주요한 문제는 국공내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와 경제붕괴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안정 유지와 함께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을 위한 노동인민의 형성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민족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국제환경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 역시 ‘노동하는 인민’을 어떻게 창출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인민은 단순히 ‘산업화의 역군’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생산소유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자각적인 정치 주체로 거듭나 인민민주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해방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업화 건설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확대와 조직화, 생산관계의 협동화,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1950년대 노조 논쟁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어떻게 노동인민을 창출하고 통제했는지,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당국체제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에서 노조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노조의 역할과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혁명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행정과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문제와 관련이 있다. 노조 논쟁을 통한 사회주의 당국체제, 이른바 ‘57체제’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와 더불어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꿈이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남고 어떻게 좌절·굴절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주의 노동자 조직화와 당-노조 관계 논쟁

1. 당의 ‘정치 영도’와 노동인민의 창출

새로운 중국은 도시 노동자가 봉기하여 권력을 탈취한 러시아혁명과는 달리, 반제국주의를 과제로 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통해

2) 2천년대 이후 1950년대 중국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국가와 사회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 중요한 역사적 근원으로 1950년대에 주목하기 시작한 배경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신구 중국이라는 이원적 대립의 역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지점이자 방법으로 1950년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화민 2006).

탄생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전인 1949년 3월에 개최된 7기 2중전회에서는 당의 업무 중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행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공업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도시 노동자계급에 대한 근거를 강화할 것, 그리고 공산당의 활동방법, 조직업무, 간부정책 등에서 ‘농촌풍’과 ‘유격풍’을 불식하고 ‘정규화’할 것 등의 지침을 내놓는다. 또한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노동계급에 의존해야 한다(全心全意依靠工人階級)’는 중요한 지도방침을 하달한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기초인 공업건설이 중시되고, 도시로의 업무 중점이 전환됨에 따라 공업건설의 담당자인 노동자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핵심 업무 역시 ‘생산건설’을 중점으로 한 업무로 확정된다(中華全國總工會·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2002, 36-37). 이러한 업무는 1948년 8월에 개최된 제6차 전국노동대회에서 전총 부주석과 당조 서기로 선출된 리리산이 주관하게 된다.

중국의 현대사 시기 구분에 따르면 1949년에서 1952년은 국민경제부흥기라고 불리며, 이 시기는 새로운 정권이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준비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조건에서 근대국가건설에 필요한 원시적 축적은 내부 자원과 인력에 대한 집중적 통제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의 영도와 통제 구조를 만드는 일은 혁명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 근대화의 꿈을 달성하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국 정부가 정권기구의 수립과 똑같이 중시하였던 것은 당 조직구조와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등 대중조직을 통한 대중의 조직화였다. 특히 농민당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당내로 흡수하여 노동자의 구성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에 당원

중 3%에 불과했던 노동자 비율은 52년에 6~7%, 56년엔 14%로 증가한다(우노 시게아키 1988, 23).

건국 초기 공산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조를 생산체제에 동원하는데,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공산당은 연안시대 경험에서 확립되었던 대중운동 방식으로 노조를 동원한다. 이에 따라 건국 초 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자를 노동조합 안으로 조직한다는 이른바 ‘노조운동’과 함께 진행된다. 즉 7기 2중전회에서 제기된 도시 공업화 건설은 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추진되었고, 생산을 위한 노동자 조직화는 노조를 매개로 하여 적극 추진된 것이다. 1949년 당시 중국의 노동계급 규모는 8백만 명 정도였고 그중 조직된 노동자는 370만 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8월 사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노조공작회의에서는 노조 조직문제와 노동-자본관계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하면서, 노동계급의 진정한 군중조직이 되기 위한 노조의 민주적 원리를 강조하고 산업노조의 기본 원칙도 명확히 규정한다. 회의가 끝난 8월 26일 중앙에서는 당 전체에 문건을 하달하며 노조 조직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우수한 당원간부를 각급 노조의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것을 지시한다(리스선, 류즈쿤 2004).

건국 초기 노조는 “생산발전, 경제변영, 공사겸고(公私兼顧), 노자양리(勞資兩利)”라는 신민주주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전개한다. 1949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호주 노조회의에서 리리산은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핵심 임무로 제기하고(리리산 1949), 이후 전총은 1950년 1월 생산부의 설립을 결정한다. 건국 초기 국영공장의 공장장은 대개 군대에서 파견된 군 대표들이 맡았기 때문에 군대식 관리로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업무는 우선 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와 노동자

의 실제 생활개선과 관련된 사안인 노동보험 실시에 맞춰졌다(리화동, 리꾸이 2007). 1950년 리리산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초안을 주관했고 1951년 2월 정무원에서 노동보험의 실시를 발표했다. 노동보험의 집행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신분등록업무가 완성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당위나 행정부문에서 노조가 “주요 업무에 간섭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리스선, 류즈쿤 2004). 1950년 <노조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되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의 임무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생산, 생활, 교육의 ‘삼위일체’였다. 생산 회복과 발전은 노조가 노동자를 동원하고 조직하는데 맡아야 하는 첫 번째 임무였고, 노동자와 자본 모두 이롭게 한다는 ‘노자양리’와 ‘노자협상’은 당시 노사관계의 특징이었다.

전총은 조직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데도 노력을 기울이는데, 1949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전총 상무위 확대회의에서는 1950년 5월 이전까지 철도, 세관 등 모두 10개 업종에 걸쳐 전국적인 산업노조를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1950년까지 전국의 주요 산업 부문과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었고 16개의 전국 산업노조영도기구가 건립된다. 1951년 전국의 노조 회원은 490만여 명으로 증가되고 1952년에는 천만 명을 넘게 된다(리스선, 류즈쿤 2004).

리리산은 노조가 ‘생산건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적극성과 열정을 독려하여 노동자들이 자각적, 적극적으로 생산에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노조의 생산건설 임무는 노동자의 생산적극성, 자각성, 나아가 주인 의식이라는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리리산은 이러한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노조는 우선 사상정치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태도를 수립하고 노동규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둘째, 노동자의 일상적 이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자의 생활을 잘 돌보아야 하며, 셋째로 관리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여유정린 2011).

해방 이후 사회주의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 지위가 변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기업 내에서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그 구체적인 제도의 하나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가 ‘주인’으로서 기업 관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당국과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의 장이던 공장관리위원회와 노동자들이 대중토론과 건의를 하던 직공대표대회가 각 기업에 설치된다. 이러한 구상을 문건으로 승인한 것이 1951년 11월 중앙에서 발표한 “기업 내 반혁명 분자 청산과 기업에서의 민주개혁 전개에 관한 지시”이다.³⁾ 문건에서는 군중에 의존해 기업민주개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강조한다. 공장관리위원회를 건립하고 공장관리 민주화를 실시하여 노동자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이러한 중국의 정치, 경제 정책의 기초는 서서히 변화된다.⁴⁾ 중국은 1950년 10월에 있었던 반혁명진압운동과 3반, 5반⁵⁾ 등의 정치운동을 통해 대중운동을 발동하

3) “關於清理工礦，交通等企業中的反革命分子和在這些企業中開展民主改革的指示”，『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二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2).

4) 한국전쟁과 함께 진행된 도시 정치운동으로 권력의 성격이 변하고 계급투쟁이 정치의 주요한 측면으로 부각되면서 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서둘러 진행되었다는 연구로는 이남주(2013)를 참고할 것.

5) 삼반오반(三反五反) 운동은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진행된 정치운동으로 정권 초기 공산주의 혁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삼반운동은 부패와

여 사회경제조직을 재편해나간다. 공산당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애국주의, 국제주의 사상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애국증산과 절약운동의 전개를 통해 경제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각 분야에 걸쳐서 사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해나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의 적극성은 점차 외세에 대응하는 애국적인 행위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기된 구체적인 생산운동이 ‘애국주의 노동경쟁’이다.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례로는 마형창 소조(馬恒昌小組), 마오쩌둥호 기관차조(毛澤東號機車組), 하오젠슈 업무방법(郝建秀工作方法)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의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은 1951년 겨울 노조에 대한 당의 정치적 개입을 고비로 하여 원래 내장되어있던 정치성은 소멸되고 이후에는 동원된 운동과 교육의 차원으로만 남게 된다. 처음에 노동자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정치적 운동이 동원체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형창 소조이다.

마형창 소조의 경우 1951년 1월 17일 당시 선양 제5기계공장 선반 1조 조장이던 마형창이 기술혁신과 생산량의 조기 달성을 제창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다. 이 소조는 1950년 한 해 동안 15종의 작업 도구를 개선하고 25개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생산 업무를 조기에 완성하는데, 이들이 제기한 경쟁조건은 주로 기술 장인의 단결, 사제관계의 유지, 노동기율 준수, 생산안전 주의, 기술강화와 정치학습, 정치적 각성 향상, 업무조작방법 개선, 품질보증 임무 완성 등이었다.⁶⁾

낭비,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고, 오반운동은 뇌물과 탈세, 국영 재산 강탈, 정부 계약사기, 국가경제 정보누설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6) “永不退色的旗幟馬恒昌小組介紹”, <http://www.hljtv.com/2011/1216/86412.shtml> (검색일: 2014.10.31). 중국의 노동계급 형성과정에서 계급론보다는 문화적 전통이

생산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생산을 제고 경쟁은 전총의 주도로 <공인일보>에 실리면서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은 하나의 애국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었고, ‘애국주의 노동경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전총 생산부 부장 동신(董昕)은 1951년 5월 ‘애국주의 노동경쟁’을 ‘중국 노동계급이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하는 주요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10월 23일 개최된 정협 1기 3차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생산증가, 엄격한 절약으로 인민지원군을 지지하자”고 호소한 뒤 전국 각급 노조에서 다양한 노동경쟁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1952년 말까지 노동경쟁에 참여한 국영공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80%를 차지한다(만용 2011).

마형창 소조의 생산성 향상은 ‘정치와 생산의 결합’ 혹은 ‘생산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자각적 열성을 요구받았다. 보수는 적지만 정치적 명예, 정신적 희열을 느끼게 되었고 대중적 증산경쟁운동을 통해 노동이 영광되고 영예로우며 영웅적인 일이라고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 노동계급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경쟁운동이 노조의 적극적 홍보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이기적인 노동자(勞動者)라는 이미지를 혁명 노동자(工人)라는 정체성으로 변화시킨다. 마형창 소조는 노동자의 자발성과 노조의 조직력, 그리고 당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건국 초기 생산성 향상에 일조한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정체성을 형성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1951년 12월 전총에 대한 당의 정치적 개입 이후 당과 노조의 관계는 변화된다. 1953년 7월 10일 전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서 마형창 소조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허하오(2013)를 참고할 것.

총에서 제정한 “노동기율을 다지기 위한 결의”에서는 노동자 개인 이익과 국가이익을 공식적으로 결합하였고, 이러한 이익 일치성으로 인해 노동자는 ‘국가를 위해 생산’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로써 노동자는 국가의 노동자가 되고 국가 역시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신중국 사회주의 노동자의 정체성은 노동자 자신의 노동을 통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국가동원, 노동규율 제도화의 확립을 통한 당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조에 대한 당의 영도 우위를 확립하면서 진행된 당에 의해 부여된 정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다. 노동자의 여가시간도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안배’하였는데, 그 출발은 노동자 생활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이후에는 노동자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권력의 전면적 개입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외부 항미원조 운동과 연결시켜 대외적 갈등관계를 이용해 이질적인 내부 이익을 통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성공했다. 대중운동 방식을 이용하여 전근대적이고 개별화되고 이질적인 노동자 집단을 근대적이고, 집단적이며, 균질적인 노동주체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전시 상황이 끝나고도 지속된다. 1954년 전총은 노동경쟁에 관한 지시를 통해 노동경쟁을 ‘가장 좋은 공산주의 교육’이라고 재정의한다. 이렇게 노동경쟁은 처음의 정치적 ‘행동’에서 정치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로써 규율있는, 애국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라는 ‘사회주의 노동규율’을 확립하게 된다.⁷⁾ 결

7) 푸코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에 새겨진 권력 형태를 고찰하는데 객관화된 주체에 알맞은 관리통치, 규제의 조응 형태를 분석하면서, 노동주체를 구성하며 객관화하는 관리기능은 ‘감시’에 있다고 본다. 푸코가 강조하는 감시는 작업장에 대한 감독 자체가 아니라, 규율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감시 그 자체를 말하며, 노동과정에 대한 감시 자체는 ‘노동자의 자기규제’를 작동시킨다. 사콜스키는 이것을 헤게모니적 통제의 특징이라고 분석하였다. 규율은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규

국 전시동원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애국주의 노동경쟁 운동은 처음에는 노동자의 창발성과 적극성으로 시작된 정치적 행위였지만 이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공산당은 노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운동의 과정은 이후 당국가의 경제사회 통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노조 1차 논쟁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까지만 해도 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전총은 산별노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며 노동자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이끌어냈으며, 노동자 생활개선과 함께 기업 내의 관리 민주화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다. 건국 초기 정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중요해지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 공간이 존재했던 전총에 대해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된 것은 1951년 2월 정치국확대회의에서 리리산을 비판하면서부터이다. 이 사건 이후 1951년 여름부터 전총은 각종 정치학습운동을 제창하기 시작했고, 공산당 역시 전총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면서 ‘반혁명진압’ 운동에 맞춰 공산당이 꺼리는 인물은 배제한다. 이로써 노조에 대한 철저한 통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당시 노조를 둘러싼 쟁점은 노조가 당의 영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체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노동자이익과 국가이익이 일치한다는 전제 아래 모순이 존재하는가, 노조는 노동자와 행정

율이 작동하는 방식은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훈련시키고 조직화하는 기술을 통해서다. 구울사회는 몸을 길들이고 감시하는 사회로서 몸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길들이므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론 사폴스키 1994).

간의 모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가, 즉 노동자 권익보호가 노조의 주요 임무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였다. 노조를 둘러싼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당내 인식이 불일치했다.

이에 대해 류샤오치, 리리산, 덩즈후이는 노동자와 국가의 기본이익은 일치하지만 모순도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덩즈후이는 공유제기업에서 노조와 행정의 국가이익과 노동자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일치하지만 서로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노조는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기본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덩즈후이 1990, 142-145). 류샤오치는 ‘공사검고’란 공영기업과 사영기업의 관계 뿐 아니라 공영기업 내부에서의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데, 공영기업에서 노동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사검고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공영기업에 존재하는 모순을 부정하는 견해는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류샤오치 1996, 264).⁸⁾ 리리산 역시 1951년 9월 공영기업 내부에는 여전히 공사이익의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순은 전체이익과 개인이익, 장기적 이익과 일상이익 간의 모순으로 그 성격은 노동계급 내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는 공사이익의 일치성을

8) 노조문제에 대해 당내 논쟁이 있자 류샤오치는 1951년 6월 <덩즈후이와 가오강 두 편의 문장을 읽고 난 장편의 수기>을 쓴다. 류샤오치는 <수기>에서 덩이 쓴 문장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덩의 기본사상이나 입장이 정확하다고 본다. 류샤오치는 국영공장 내부의 기본적 모순은 국영공장 관리기관과 노동자 대중 간의 모순이자 국영공장 내부의 공사(公私) 갈등이라고 보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적대적인 것이며, 노동계급과 인민 내부의 모순으로 동지적이고 화해, 단결적인 방법으로 모순관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순을 처리하고 조절하기 위해 국영공장에서 노동자 대중은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가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여 공장관리기관과 각종 문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류샤오치의 <수기>는 정세 변화로 인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다가 34년이 지난 뒤 “국영공장 내부모순과 노조 업무의 기본임무(國營工廠內部矛盾和工會工作的基本任務)”라는 제목으로 『류샤오치선집(劉少奇選集)』에 실리게 된다.

강조하면서도 노동자 생활과 노동조건 등과 관련된 공사이익 모순의 문제에서는 노동자 이익보호의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리리산 1990, 206-212). 이들은 대체로 신민주주의 정책 방침에 맞게 노동자 이익보호를 노조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노조는 이러한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민주관리 실시를 요구했던 것이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이 민주관리를 요구했지만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지 않았고, 국무원에서는 노조의 많은 활동에 찬성하지 않았다(한시아 2011).

반면 동북국 서기였던 가오강은 덩즈후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사상경계를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1년 4월 “공영공장에서 행정과 노조 입장의 일치성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덩즈후이를 비판한다. 가오강은 공영공장에서는 계급착취나 계급갈등이 없으며 따라서 행정과 노조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덩즈후이의 의견이 노동계급의 영도 지위를 모호하게 했고 공영기업의 사회주의 성격과 공영기업과 사영기업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모호하게 했다고 보았다. 노동자 이익의 문제에서 노조와 행정은 일치된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동북일보 사설 1990, 173-184). 가오강은 이 문장에 대해 마오쩌둥에게 감수를 요청했고 이를 <동북일보>에 발표한다(한시아 2011).

이러한 두 가지 의견 대립에 대해 리리산이 마오쩌둥에게 보고를 했고, 이에 노조에 관한 논쟁은 중앙과 마오의 관심을 끌었다. 1951년 1월 마오는 리리산을 찾아 노동운동문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4중 전회에서는 노조업무를 반드시 중점적으로 다루고 당 전체 차원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한다.⁹⁾ 그러나 1951년 초가 지나자 마오의 관점

9) 마오는 노조 업무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조가 균중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은 있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모두 열성분자들이다. 단지 업무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인데

에 변화가 생기고 리리산의 의견을 부결한다. 그는 중앙의 한 문건에서 면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노조 업무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쓴다.

그 뒤로 중공중앙에서는 1951년 11월 류샤오치, 리푸춘(李富春), 펑진(彭真), 라이뤄위(賴若愚), 리리산, 류닝이(劉寧一)로 이루어진 전총 당조 간사회를 구성하여 전총 당조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게 한다. 12월 13일 당조 간사회 영도로 전총 당조 제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는데, 회의는 노조업무의 기본 경험과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리리산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12월 20일 리푸춘은 보고에서 리리산의 업무상의 3가지 잘못을 지적한다. 첫째, 노조의 성격과 임무 문제에서 생산중심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과 생산을 대립시키는 경제주의 오류를 범했다. 둘째, 노조와 당의 관계 문제에서 당이 노동계급의 최고 조직형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조가 당의 영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조주의 착오를 범했다. 셋째, 업무방법에서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실사구시적인 영도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주의, 형식주의의 착오를 범했다는 것이다(리푸춘 1990, 266-285).

12월 21일에는 당조 간사회 구성원이 아닌 천보다가 마오의 정치비서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한다. 공영기업에서 ‘공사검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리리산의 주장은 ‘분배중심론’이라는 것이다. 천보다는 이는 노조 업무의 노선 오류이자 노조 업무의 방침 오류라고 단언한다(강용허 1999, 421- 422). 12월 22일 확대회의에서는 <전국 총공회 업무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리리산의

기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부족한데 있다. 문제는 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4중전 회에서는 반드시 노조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공장 관리와 노조 업무를 중심으로 연구하라. 전총의 과거 업적은 성과가 있다. 일부 공장기업에서 당, 노조, 군중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군중에서 벗어난 현상이 많은데, 당 전체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한시아 2011).

잘못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노조 업무의 근본적인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리리산이 국영기업에서 공사모순을 강조한 결과 노조를 완전히 협애한 경제주의 조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조와 당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당의 노조에 대한 영도를 부정하고 매우 심각한 노조주의 착오를 범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조조직문제나 단체계약, 임금, 노동보험 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방식이 현실과 대중에게서 벗어난 주관주의, 형식주의, 사무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심지어 가부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해서 리리산에게 “경제주의”와 “노조주의” 두 개의 모자가 씌워졌고, 그가 사회민주당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민당적 경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노동자 운동과 당의 사업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결의>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향후 노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노조와 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노조 관련업무자는 반드시 노조에 대한 당의 영도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당 중앙과 각급 당위의 통일적인 영도 아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노조는 무조건적으로 당의 대중 사업을 돕고 대중 속에서의 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노동자 대중 속에서의 당의 조직발전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노조의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임무이다(리구이차이 1990, 294-304)”.

당조 제1차 확대회의의 결과 일정 기간 동안 노조 업무는 국영기업 내부이익의 일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모순은 말하지 않으면서 생산만을 강조했으며, 노동자의 경제적, 민주적 권리 보호는 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적 생산을 위해 자각적으로 제기된 노동자들의 창발성은 그 정치적 행위의 의미가 퇴색되고 노동자 각성을 위한 ‘교육’과 동원을 위한 ‘운동’의 차원으로 머무르고 말

았다. 노조가 당의 영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당의 영도아래 노조가 독립조직이라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노조에 관한 1차 논쟁이 노조 업무를 당의 영도에 묶어두고 행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후 기업 내부에서는 당·정 영도간부의 주관주의나 관료주의 현상, 그리고 군중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노동자의 민주권리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한시야 2011).

요컨대 건국 초기 신민주주의 노선 아래 생산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지침아래 전층은 노동자의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해 사회주의 인민으로서의 자각과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노동인민 창출에 앞장섰지만, 1951년 12월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 리리산 비판으로 인해 이후 노동자 교육과 동원을 위한 피동적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노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해 당은 대중조직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후 ‘정치적 영도’에 머물렀던 당의 영도는 ‘업무 영도’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노조의 업무는 당의 대중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수동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건국 초기의 노동자 대중의 열망은 노조 1차 논쟁을 거치면서 한 풀 꺾이고 만다.

Ⅲ. 당 영도의 확장과 당국체제 확립: ‘업무 영도’를 거쳐 ‘조직 영도’로

1. 관료주의의 문제와 대중운동의 고조

리리산에 이어 전총을 주관하게 된 라이뤄위는 처음에는 리리산의 노조사상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였고, 노조 제7차대표대회에서 “노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체 노동자와 공정 기술자, 노동자들이 자각적, 적극적으로 생산발전을 위해 투쟁하도록 단결시키고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라이뤄위 1953, 19). 이렇게 해서 노조의 기본 임무는 ‘생산, 교육, 생활’로 압축되고, 노동자 이익 보호 기능은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1953년 과도시기 총노선의 방침에 따라 9월 10일 인민일보에서는 <당의 노조 업무에 관한 영도 강화(加強黨對工會工作的領導)>라는 사설이 발표된다. 이 사설에서는 노조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원칙과 방법, 구체적 조치를 제기했고, 노조의 전체 업무가 모두 당의 방침과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¹⁰⁾ 당의 정치적 영도는 업무에 대한 영도까지 확대되었고, 이렇게 되자 노조의 민주적, 능동적 권리는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듯 건국초기 노동자 조직과 증산운동 추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전총은 1차 확대회의 이후 매우 수동적이고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1956년 중국은 사회주의 개조의 완성을 선고했으나 인민 내부의 모순이 점차 두드러졌고, 특히 기업 내에서 국가이익과 노동자 개인

10) “노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노조 조직 중의 당 조직과 당원을 통해 실현한다. 따라서 당의 노조 영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조직 재능이 있고 당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며 균중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간부를 배양, 선발, 배치해 (균중선거를 통해) 노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人民日報』, 1955.09.10).

이익간의 모순이 점차 두드러져 나타났다. 기업 영도간부의 업무태도에서 심각한 관료주의와 명령주의가 나타나 간부들이 노동자의 민주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의견은 듣지 않았다. 어떤 간부는 직권을 남용하기도 하여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초래하며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청년보 기자였던 류빈옌(劉賓雁)의 도시와 공장 관찰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욕망은 점차 높아졌지만 물질적인 생활개선은 매우 느렸다고 보고한다. 당시 하얼빈의 물가지수는 몇 년간 매년 15%씩 높아졌지만 노동자들의 월급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으며, 7년간 일했지만 정식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 임시노동자들의 불만도 있었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데 대한 불만과 갈등은 특히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심각해졌고 반응 역시 강렬했다. 특히나 1956년 가을 홍작과 합작사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정부기관의 간소화운동과 평소보다 많은 제대군인의 숫자,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 숫자 감소 조치 등으로 1957년 초 도시 실업문제는 위기에 달해 있었다(첸리쥘 2012b, 70-75).

한편 1956년 2월 흐루시초프의 ‘비밀보고’가 야기한 파문은 6월에 폴란드 포츠나니 폭동, 10월에는 헝가리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주의 세계를 흔들었고 그 파문은 중국에도 파급된다. 1956년 겨울부터 다음해 봄에 걸쳐 상하이, 푸저우, 청두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 파업과 학생의 수업거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선즈화 2008, 448-449; 가오아이디 2012). 1957년 문건에 따르면 노동자 파업, 학생 수업거부, 군중들의 시위 청원 및 다른 유사 사건 등이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대략 1만 건이 넘는 노동자 파업과 1만 건이 넘는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있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젊은 노동자들과 주변노동자들, 즉 임시

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編 1989, 507-515). 당시 상하이시 노조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57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파업은 약 44개 공장, 3,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반면, 5월에서 6월 사이 파업은 548개 공장, 31,000명의 노동자들로 급증했다(선즈화 2008, 593; Perry 1994). 당시 상하이는 중국 최대 공업도시 중의 하나였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 정서는 지식인 사회와 학생들 사이에서 반향을 올렸다. 마오쩌둥이 예로 든 스자좡(石家莊)에서의 학생들의 방송국 점거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헝가리의 재현을 선언하면서 기세를 올렸다”고 한다(마오쩌둥 1977, 330-362).

당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파업과 학생의 수업 거부, 합작사 퇴사, 각종 시위와 청원 등의 근본원인은 역시 집정당 자체 문제에 있었다. 특히 폴란드·헝가리 사건이 알려진 뒤 간부들의 관료화와 특수화를 비판하는 보고들이 급증했다. 기층 간부들의 독단적이고 전횡적인 업무태도, 기층 당원간부들의 명령주의와 관료주의, 기층 사법기관의 문제 뿐 아니라 인민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사례들도 증가했다. 1957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져 푸저우에 있는 한 현의 경우 간부들 중 70%가 부패해있었고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하여 당과 인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선즈화 2008, 468-469). 기층 노조들 역시 노동자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노동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행정과 한 통속’, 혹은 ‘행정의 꼬리’라고 조롱하고 원망하는 대중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졌고, 노조가 대중에게서 이탈하는 현상도 날로 심각해졌다. 1차 확대회의 이후 노조의 독립성이 점차 약화되자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를 버리고 스스로 조직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 요구를 표출하기도 했다. 기업 간부와 노동자 대중 사이에 끼인 노조는 대중들의 불만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한시야 2011).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요에 대처할 때 중요한 것은 아와 적과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오는 57년 2월 12일 <인민내부 모순의 올바른 처리 문제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소요의 원인으로 마오는 한편으로는 반혁명분자와 악질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주요인은 당원이나 간부의 관료주의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당원과 간부의 변질이 관료주의의 근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오는 대중의 소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대중이 가두로 몰려나가는 ‘대민주’는 관료주의자에 대응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노동자의 파업을 허용하고 대중의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오식의 독특한 소요대응 방식을 보인 것이다(우노 시게아키 1988).

한편 노동자 파업물결이 일어나자 전총 지도자들은 노조 업무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총 주석 라이뤄위의 노조사상 역시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 1954년 발표한 <어떻게 군중을 대할 것인가>와 56년 9월 8차 당대회 발언에서 라이뤄위는 “노조는 당의 영도 하에 독립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조조직은 노동자 군중이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 군중이 노조를 자신의 조직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린원후이 2007). 또한 1956년 8월에 개최된 전국군중생산공작좌담회에서는 전총의 근본적인 잘못 중 하나가 생산에만 집중하고 노동자 생활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라고 성찰한다(라이뤄위 1987, 386-387).

1957년 4월 정풍운동이 시작되면서 전총의 자기 성찰은 한층 더 깊어진다. 전총 내부의 회의에서 라이뤄위는 노조가 대중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원인이 주로 노조와 행정의 관계, 노조와 당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라이는 “노조가 반드시 당의 영도 아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직상으로 노조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다. 노조는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대중의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당의 영도만을 강조하고 노조의 조직상의 독립성을 소홀히 했다”라고 말한다(라이뤄위 1990, 599-560).

이어 라이뤄위는 각 지역으로 내려가 10개 도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산시, 산시, 간쑤 성 노조와 타이위안, 시안, 란저우 시 노조를 방문한다.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인일보> 기자 리펑(李峰)이 전총판공실 부주임 리슈원(李修文)을 인터뷰하고 쓴 “노조 업무 관찰기(工會工作‘走馬觀花’記)”와 <공인일보> 사장 천용원(陳用文)이 쓴 “서행기요(西行紀要)” 두 편의 문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글은 노조 업무가 대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과 노동자들의 요구와 희망에 관해 적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모순은 많은 노조 간부들을 성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총 당조 제1차 확대회의에서 있었던 리리산에 대한 비판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노조 간부들이 노동자와 국가이익이 일치하지만 모순도 존재한다는 그의 관점이 옳다고 보았다. 모순이 주로 분배에서 나타난다는 리리산의 견해도 틀리지 않았고 당시에 무슨 경제주의나 노조주의의 오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노조 간부들은 노조가 노동자의 정당한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는 바로 1차 확대회의 이후 노조를 경제주의라고 위에서부터 비판한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본 것이다(린원후이 2007).¹¹⁾

노조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정풍의 바람을 타고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덩윈(1957)은 “노조 역할 문제에 관한 의견”이란 글에서 노조의 본질은 노동자 이익의 보호이며 사회주의 제도에서 노조는 여전히 노동계급의 경제이익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덩윈의 글이 발표된 뒤 노조의 성격과 역할, 임무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어, 1957년 7월말까지 4개월간 <중국공운(中國工運)> 편집부에 투고된 원고가 40편에 달했으며, 그중 6편이 제6기에서 10기 사이에 발표된다. 1957년 <중국공운> 13기에 덩윈은 다시 한 번 “노조 존재의 객관적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고 노동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시 리리산의 인식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주장한다. 전총 당조 제1차 확대회의에서 통과한 문건과 리푸춘이 확대회의에서 결론 지은 문건에 대해 당시 의혹이나 반대를 제기하는 의견이 급증했다. 1957년 9월 중순까지 전국 노조간부 수만 명이 당시의 결의를 반대하며 보낸 서신이 5백여 건이 넘었다(라이뤄위 1957).

한편 당의 정풍운동이 시작되자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베이징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가에서는 모든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아래에서 위로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확대하자는 이른바 ‘5·19민주운동’이 일어났다. 5·19 민주운동에서는 맑스주의의 비판정신을 회복하고 사회주의 민주와 사회주의 공유제로의 복귀, 당의 권력 제한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¹²⁾ 그

11)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글은 1957년 3월에 발표된 왕원싱(王文興)의 “경제주의 반대에 관한 문제(關於反對經濟主義的問題)”, 덩윈(丁云)의, “노조 존재의 객관적 기초는 무엇인가(工會存在的客觀基礎是什麼)?”, 신화사 기자 천이주(陳苾珠)의, “당 중앙과 전총이 전총 당조 확대회의에서 리리산 동지의 잘못에 대해 내린 결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린성 일부 노조간부들의 제의(吉林有些工會領導幹部提出黨中央和全總應該考慮全總黨組擴大會議對李立三同志錯誤所作的結論)” 등이 있다.

러나 베이징대학에 대자보가 나붙으면서 마오의 태도는 뚜렷하게 변화되었고, 마오가 2월에 발표했던 <인민내부 모순의 올바른 처리 문제에 관하여>가 동년 6월 19일 신문에 공표되면서 4개월간의 국내 정세는 급선회하게 된다.¹²⁾ 그동안 민주인사들에게 “마음껏 비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을 당기고 선동해 온 공산당이 태도를 바꿔 ‘우파분자’에 대해 단호한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1957년 여름 반우파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산당은 정풍대상을 당내에서 사회전체로 확대시킨다. 반우파투쟁 과정에서 정풍의 당초 목적이던 관료주의 비판의 요소는 희미해지고 당내에서도 ‘우파분자’를 적발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이러한 당내 ‘우파분자’ 고발운동은 당내의 대답을 격화시켰다.

2. 노조 2차 논쟁

이러한 분위기에서 1957년 9월 전총 당조 2차 확대회의가 열리는 데, 이 회의가 개최될 즈음은 전국적으로 자산계급 우파에 대한 투쟁이 고조기에 이른 때였다. 당시 노조업무에 관한 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불일치를 보였다. 하나는 1951년 12월의 당조 확대회의에 관한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7대 이후 노조업무에 대한 평가와 당시 노조 업무의 주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여전히 애매하고 불확실한 전총의 입장에 대해 1958년 3월 중공중앙은 청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중공중앙의 노조조직문제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킨다. 이 의견에서는 현재 노조체제의 조직적 특징을

12) 5·19민주운동 당시 각종 간행물, 대자보 등을 통해 발표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로는 첸리첸(2012b)을 참고할 것.

13) 1957년 2월 27일에 발표할 당시와 1957년 6월 19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발표한 당시의 마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첸리첸(2012a, 216-228)을 참고할 것.

기본적으로 확정한다. 우선 각급 노조조직은 반드시 동급 당위 영도를 위주로 하면서 상급노조의 영도를 받아들이고, 각 성, 시, 자치구 노조연합회는 성, 시, 자치구 총공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노조의 조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을 하여 상황에 따라 보류, 합병, 철회 등을 하되 실제로는 각급 노조의 부서로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編 1989, 648). 이 의견의 핵심적 내용은 산업노조의 약화, 노조 조직라인 내부의 수직적 영도 약화, 지방 각급 당위의 노조 업무에 대한 영도 강화 등이었다. 이로써 노조는 정치적, 업무적으로 당의 영도를 수용할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당의 영도 아래 묶이게 되었다. 지역 당위 아래 각 지방 노조를 두면서 노조는 하나의 조직체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당위의 한 부서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산업노조 역시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당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총 내부에서는 일치된 결의를 내놓지 못했고, 여러 이견이 존재한 채 1958년 5월~8월 사이 전총 당조 제3차 확대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1958년 5월 20일 라이뤄위가 병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6일 시작되어 8월 5일에야 폐막되는데, 우파분자와 반혁명분자 척결, 우경기회주의와 종파주의 청산, 마지막으로 노조의 향후 업무 해결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中華全國總工會黨組 1989, 650). 이 회의에서는 “노조는 반드시 정치적, 조직적, 업무적으로 당의 통일 영도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고, 반드시 당 중앙의 정치노선, 방침, 정책 및 각 시기의 핵심 임무를 관철시키고 집행해야 한다. 국정방침은 당 중앙이라는 하나의 정치설계원 만이 할 수 있으며 노조는 결코 당과 대립되거나 차별화하거나 자립하거나 스스로 일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제도에서 노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 교육과 조직으로 노동생산

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와 기업 행정은 반드시 하나의 마음이어야 한다. 노조는 모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노동자들이 생산임무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동원한다”(中華全國總工會黨組 1989, 679-680) 등을 규정한다. 이로써 1951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노조에 관한 논쟁에 쐈기를 박고, 노조가 당 조직 속에 완전히 종속되는 중국의 노조체제를 확립한다.

이 회의는 중앙의 직접 영도아래 진행되었는데, 전총의 업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의를 통과시킨다. 전총 부주석인 류닝이가 주관한 이 회의에서는 전총관련 인물인 천용원(공인일보 사장)과 친다위안(秦達遠, 전총 서기처판공실 주임)을 계급혁신분자, 수정주의자,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주로 라이뤄위의 심각한 우경기회주의 착오를 비판한다. 라이뤄위가 “당의 노조에 대한 영도에 반대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 했으며 당의 노조운동 방침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운동을 송배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라이뤄위와 동신을 필두로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경기회주의와 종파주의 오류’를 범했다고 결론짓는다(리구이차이 1990, 796-804). 이 회의 이후 많은 노조 조직들은 하급노조에서 업무 지시를 요청할 때 단지 ‘당위에 지시를 요청해 해결하시오’라는 답변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고, 노조 자체의 조직라인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노조의 당 영도 수용”과 “노조의 조직역할 발휘” 두 가지를 대립시켜 당 영도에 대한 노조의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조하고, 노조의 균중성과 조직 상의 자주성은 거론하지 않는다. 노조와 행정 관계에서도 단결일치만을 강조할 뿐 노동자의 물질이익과 민주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고 또한 관료주의와 위법 현상에 대한 투쟁도 거론하지 않았다. 노조와 대중 관계에서도 노조가 노동자를 동원해 생산발전에 매진하여 국가이익 보호라는 임무와 역할

을 다해야 함을 강조할 뿐, 노조가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여 노동자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1957년 정풍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노조의 ‘행정의 꼬리’가 되는 경향에 대한 수정 요구와 노동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대약진의 열기 속에서 강조된 당의 일원화 영도와 ‘공산주의 풍’이라는 정치적 분위기 고취 속에서 갑자기 밀려나게 된다. 이 회의로 인해 중국 노조는 당 중앙과 지방 각급 당위의 절대적인 영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당위의 한 부서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후 당의 핵심 임무가 곧 노조의 핵심 임무로 되었고, 당 영도 아래 노동자 교육과 단결만을 강조했다. 두 차례에 걸친 노조 논쟁을 거치면서 공산당은 노조라는 대중조직을 당의 영도 하에 조직적으로 확고하게 종속시킴으로써 노동자 대중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 국가의 노동자 조직이라는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후 노조의 핵심 임무는 노동자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주로 당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바뀐다. 노조에 대한 당의 요구는 절대적 권위와 강제성을 띠게 되었고, 노조는 반드시 당에 복종해야만 하며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임무의 확정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노조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장의 노조 간부들은 당의 핵심임무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많은 당정 간부들이 노조의 업무를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리리산이나 라이뤄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의 핵심임무의 변화에 따라 노조의 핵심임무도 변하게 되니 노조 자체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모호했고, 전문적인 노조 간부를 육성하지 못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노조

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렇게 해서 리리산을 비판했던 라이뤄위 역시 리리산과 똑같은 이유로 숙청당하게 되고, 이후 ‘우파’로 낙인찍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급진주의의 결함을 지적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노조 내에서는 노동자 민주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대중조직에 대한 당의 ‘업무’ 지도는 마침내 노조 ‘조직’에 대한 영도로까지 확립되었고, 노조의 정책비판과 인민권리 주장이 막히게 되면서 중국식의 당국체제가 완성하게 된다.

IV. 당국체제와 노동자 정치의 변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건설된 중국은 근대적 공업화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표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건국 초기 산업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러한 이중 과제를 ‘사회주의적 노동인민’의 창출을 통해 실현하려 했다. 이는 국가건설과 공업화 추진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제하는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만드는 과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국가와 기업의 주인이라는 사회주의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정에서 확립해 온 ‘균중노선’에 따라 건국 초기 제한된 자원과 전쟁이라는 외부 조건에서 일련의 정치운동 과정을 통해 ‘노동하는 인민’을 창출하고 동원한다.

건국 초기 노조는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한다.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고 동원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노

동자로서의 자각과 노동자 스스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 내 노동자의 민주적 자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쓴다. 당의 정치적 영도 아래 당과 노동자를 매개하는 대중조직으로써 노동자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군중관점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노동계급을 조직하는데 앞장선다. 이른바 중국 혁명의 핵심 정신인 ‘군중노선’에 따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인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를 독려 받으며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간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정권의 지도부는 당 영도에 의존하는 인민 대중과 인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당이라는 체제 정당성의 내재적 논리를 만들어 나갔고, 이러한 체제 내부의 논리를 동력으로 삼아 건국 초기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권의 정당성도 함께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의 국유기업 노동자들은 1950년대를 황금의 시대로 기억하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일조했다는 자랑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통신 2006).

그러나 1950년대 노조에 관한 두 번의 논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를 당과 연결시키는 노조의 ‘매개’적 역할은 더 이상 노동자 스스로를 위한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인민으로부터 정치적 위임을 부여받음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 공산당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적’ 영도의 위상을 확립하지만, ‘정치적’ 영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자의적이고 모호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노조 1차 논쟁을 거치면서 대중조직에 대한 당의 정치적 영도는 ‘업무’ 영도로 확대되었고, 다시 50년대 중반 국제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치변동과 국내 정치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2차 논쟁을 거치면서 당의 업무 영도는 ‘조직’ 영도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당의 ‘조직’ 영도라는 틀 내에서 노조는 위아래 조직이 서로 단절되고 자체 조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전층은 영도계급으로서의 노동

자 조직이라는 정치적 상징만을 갖게 되었고, 지방 노조는 각 지방 당-정부에 의해 완전히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기층노조는 위에서 아래로 편성(set up)되는 것이지 조직(organize)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노조의 민주와 자치의 원리는 상실되고 노동자 계급에 기반한 노조가 아닌, 당과 행정에 직접 종속되는 대중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노동자의 조직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역시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한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당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노동인민’에 머물고 만다. 또한 노동자는 높은 조직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통해서가 아닌 개별 노동인민으로 당과 마주하게 되고, 단위체제 틀 내로 분산되면서 당국체제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¹⁴⁾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라는 수사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와 분리되어 정치적 수사로만 남게 되고, 노동자의 계급이익이란 담론 자체가 당 우위 혹은 국가이익이란 절대 가치 아래로 종속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노조에 관한 논쟁의 결과, 당의 노조에 대한 영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노조에 대한 업무와 조직 구조까지도 당정 조직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완전한 당국체제의 구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인민에 기반한 당, 당에 의존하는 인민”이라는 균중노선에 내재된 원리는 약화되었고, 사

14) 도시에서 주민의 소비수요를 억제하고 국가의 자원에 대한 강제적 추출과 재분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사회생산화로 분산된 개인생산을 대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원래 직업 의미를 지녔던 ‘작업 장소’가 자원을 축적하고 공공재품을 공급하고 사회통제기능을 실행하는 국가행정기구에 예속된 ‘정치적 단위’로 직접 개조된다. 이러한 제도적 배치가 국가와 사회관계 속에 나타나게 되어 국가가 거의 모든 중요한 자원을 독점하고 사회에 대해 전면적이고 고강도의 통제를 실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고도의 통제는 바로 당의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조직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직적 루트는 당국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천밍빙 2000).

회 모든 조직에 대한 엄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당국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반우파투쟁 이후 형성된 당국체제, 즉 첸리쑤이 말하는 ‘57체제’의 형성은 전쟁과 사회주의권 국가의 변혁이라는 외부적 조건에서 가속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당과 인민의 긴밀한 관계라는 전제 속에 당이 언제나 인민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원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은 인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인민의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은 인민으로부터 벗어난 당에 대해 언제나 조반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당-인민 결합모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갖는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이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면(脫離) 그 정당성이 약화되고, 대신 군중(조직)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면 당의 지위가 도전받게 된다. 또한 인민은 당을 벗어나면 행동의 정당한 근거가 없어지고, 다시 당과 밀착하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공간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당-인민 결합모델이 갖는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중국 현대사에서 ‘국가발전주의’의 목표에 따라 당-국가에 의한 사회경제 재편과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 어김없이 ‘인민중심주의’적인 사회의 반격이 진행되었다. 중국식 당국체제 내부에 내재된 일종의 “이중운동”으로 볼 수 있다. 첸리쑤의 ‘57체제’에 대한 논의 역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당이 이러한 통치체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민간사상도 탄생시켰다고 보는 점에서 바로 그렇다. 즉 마오쩌둥의 ‘57체제’는 민간사상가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지만 이 자체에 민간사상의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사상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회복되고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스즈키 2012).

문제는 당 영도와 인민의 지지 간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구상과 방식이 자체 내에 모호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환경 변화나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수많은 논쟁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인민에 대한 당 영도란 어떠한 범주까지의 영도를 말하는가? 당의 정치적 영도라는 명분으로 인민의 모든 자율적인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가? 인민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당은 인민의 어떠한 요구를 수용하고 어떠한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만약 거부할 경우 인민의 어떠한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당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인민의 비판을 어느 범주까지 허용하고 차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1, 2차 노조 논쟁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이론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운동 과정에서 당은 노조를 조직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확고한 당국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조직을 통하지 않고 당 조직과 전체 사회주의와 연결되었고, 단위 체제라는 도시 통제 구조에 의해 이러한 특징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체제구조에서 노동자는 국가에 의해 제공된 논리들, 즉 국가안보, 사회주의 건설, 따라잡기식 근대화 등의 열기 속에서 ‘사회주의 노동전사’ 혹은 ‘영도계급’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부여받으며 사회주의 근대화를 위한 ‘노동인민’으로 창출된다. 다시 말해 중국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경제적 토대 위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계급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로 위로부터의 권위에 의해 만들어진 계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직업적 이해에 기초하여 동일한 계급의식을 갖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체제수준에서 노동계급은 영도계급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만 구성되고 작업장에서는 원자화된 노동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정책의 제정 및 집행의 주체는 당과 정부지만,

(혁명이든 개혁이든) 모든 정치적 변화의 동력은 인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중국 체제의 정당성이 인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당국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당이 언제나 인민과 함께 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당이 언제나 인민과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해줌으로서 인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57체제 이후 경직화된 당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인민이 정치로 불려나왔고, 당이 노조를 정치적, 업무적, 조직적으로 영도하는 노조체제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릴 때마다 자주적인 노동자(조직) 운동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대중운동이 중국 정치원리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고 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당국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14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9일

참고문헌

- 론 사콜스키. 1994. “규율적 권력, 노동과정, 노동주체의 구성.” 『문화과학』 6.
스즈키 마사히사. 2012. “‘57체제’가 시사하는 바.” 『한국학연구』 27.
宇野重昭(우노 시게아키) 외 지음, 이재선 옮김. 1988.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학민사.
이남주. 2013. “한국전쟁과 신중국의 정치운동: 신민주주의체제의 폐기와 인민민주전정의 강화.”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아시아의 탄

- 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 첸리쥬 저 · 연광석 역. 2012a.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서울: 한올아카데미.
- _____. 2012b.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기록』. 서울: 그린비.
- 허하오. 2013. “신중국 노동국민의 형성과 전 국민 동원의 현실”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 高愛娣(가오아이디). 2012. “1956-57罷工潮及黨和工會的反思.” 『學海』 4.
- 耿化敏(경화민). 2006. “從宏大敘事到實證分析: ‘1950年代的中國’研究熱述論.” 『黨史研究與教學』 1.
- 東北日報社論稿(동북일보 사설). 1990(1951년 4월). “論公營企業中行政與工會立場的一致性”. 李桂才 主編.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丁云(딩윈). 1957. “對於工會作用問題的一點意見.” 『中國工運』 4.
- 鄧子恢(딩즈후이). 1990. “關於中南區的工會工作”(1950年7월). 李桂才 主編.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賴若愚(라이뤄위). 1953. “爲完成國家工業建設的任務而奮鬥: 在中國工會第七次全國代表大會上關於中國工會工作的報告.” 『中國工運』 7.
- _____. 1957. “賴若愚同志在全總黨組擴大會議上的總結發言.” 『中國工運』 20.
- _____. 1987(1956년 8월). “在全國群眾生產工作座談會上的講話”. 中國工運學院 編. 『李立三賴若愚論工會』. 北京: 檔案出版社.
- _____. 1990. “在全國總工會直屬機關黨員幹部大會上的整風動員報告”(1957年5月10日). 李桂才 主編.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呂小薊(뤄샤오지). 2003. “劉少奇1951年提出‘人民內部的矛盾’概念的前前後後.” 『黨的文獻』 6.

- 劉少奇(류샤오치). 1996. “劉少奇在全國總工會黨組擴大會議上的講話”(1950年11月29日). 『劉少奇年譜(下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李桂才(리규이차이)主編. 1990.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李立三(리리산). 1949. “關於中國工人運動: 李立三同志在亞澳工會會議上的報告.” 『工人日報』(11月22日).
- _____. 1990. “關於在新民主主義時期工會工作中機個問題的決議”(1951年9月28日). 李桂才 主編.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李思慎(리스션) · 劉之昆(류즈쿤). 2004. 『李立三之謎: 一個忠誠革命者的曲折人生』. 北京: 人民出版社
- 李富春(리부춘). 1990. “在工會工作問題上的分歧”(1951年12月20日在全國總工會黨組擴大會議上的結論). 李桂才主編. 『中國工會四十年(1948-1988)資料選編』.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李華東(리화둥) · 李貴(리귀이). 2007. “淺析李立三工會獨立思想”. 『黑龍江教育學院學報』6.
- 林蘊暉(린운희). 2007. “上世紀50年代關於工會工作方針的爭論.” 『學習時報』(4月18日).
- 滿永(만영). 2011. “身體, 政治與生活: 1950年代初的工廠勞動生活研究.” 『江蘇社會科學』6.
- 毛澤東(마오쩌둥). 1977. 『毛澤東文集(第五卷)』. 北京: 人民出版社.
- 沈志華(선즈화). 2008. 『中華人民共和國史第三卷: 思考與選擇 - 從知識份子會議到反右派運動(1956-1957)』. 香港: 香港中文大學.
- 游正林(여우정린). 2011. “工會如何搞生產?: 李立三, 賴若愚的探討及其啓示.” 『江蘇社會科學』3.
- _____. 2012. “20世紀50年代中國工會的中心任務的形成: 重溫上個世紀50年代全總黨組三次擴大會議.” 『學海』4.
- 中華全國總工會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2002. 『毛澤東鄧小平江澤民論

- 工人階級和工會工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華全國總工會黨組. 1989. “全總黨組第三次擴大會議向中央的報告”(1958年 9月2日). 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編. 『建國以來中共中央關於工人運動文件選編』(上).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 中華全國總工會辦公廳編. 1989. 『建國以來中共中央關於工人運動文件選編(上)』.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 陳明明(천밍밍). 2000. “現代化進程中政黨的集權結構和領導體制的變遷.” 『戰略與管理』 6.
- 程璇(청쉬안). 1993. “五十年代關於工會理論問題的爭論和對李立三賴若遇的錯誤批判.” 『北京 黨史研究』 4.
- 錢理群(첸리췌). 2014. “毛澤東與中國的“五七體制.”
<http://www.china-review.com/lishipindaoa.asp?id=34512> (검색일: 2014.10.31)
- 康永和(강용희). 1999. “憶立三同志”.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編. 『李立三百年誕辰紀念集』. 北京: 中央黨史出版社.
- 佟新(통신). 2006. “延續的社會主義文化傳統: 一起國有企業工人集體行動的個案分析”. 『社會學研究』 1.
- 韓西雅(한시아). 2011. “工人階級, 工會, 黨, 行政: 建國初有關工會問題的兩次爭論.” <http://wen.org.cn/modules/article/view.article.php/article=2824> (검색일: 2014.04.30).
- 胡其柱(후치주). 2004. “工會轉向: 建國初期的工會之爭.” 『聊城大學學報』 4. “加強黨對工會工作的領導”, 『人民日報』, 1955.09.10.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二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 “領導幹部必須增強政治定力: 深入學習貫徹習近平同志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的重要講話精神”, 『人民日報』, 2013.09.24.
- “永不退色的旗幟馬恒昌小組介紹”, <http://www.hljtv.com/2011/1216/86412.shtml> (검색일: 2014.10.31).
- Perry, Elizabeth J. 1994. “Shanghai’s Strike Wave of 1957”, *The China Quarterly* 137.

Abstract

Twice Debates about Chinese Trade Union in the 1950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y-State System

JANG Youn Mi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how working people in socialist system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CCP(Chinese Communist Party) and trade union, and how the Party-State system had been built in that process through an overview of twice debates about Chinese trade union in the 1950s. In the early periods of nation-building, ACFTU(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organized and mobilized workers for production, raised the awareness and consciousness of the workers themselves as a master of socialist factory, as well as, struggled to improve the system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self-management within the factory. After twice debates about trade union, however, the 'intermediary' role of the trade union connected with the Party does not proceed to the 'organization' for workers themselves. After the first debat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Party has been expanded to lead

administrative 'work' area in the crisis of nation-building and war, and after the second debate, the work leadership of the Party has extended to lead 'organization' area in the mid-1950s. The trade union was organizationally dependent on the Party within the party leadership frame, thereby Chinese leadership could be forming a strong Party-State system blocking the possibility of worker's voluntary organization or political empowerment. However, the Party-State system has the immanent dual principles, which is "'party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e people that depend on the party leadership", so the mass movement was constantly invoked in political stage and the independent labour movement was also emerged repeatedly in the Chinese contemporary history.

Keywords: Chinese Communist Party, Party-State System, Socialist Working People, ACFTU(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Union System.